

#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거의 의미와 사용 II

: 주거의 사용을 중심으로

## Meaning and Use of Housing through Narrative Life History in Korea II

: Focused on the Use of Housing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 수 홍 형 옥\*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 수 양 세 화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과

부 교 수 전 남 일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

Professor : Hong Hyung-Ock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Univ. of Ulsan of Korea

Professor : Yang Se-Wha

Dept. of Consumer & Housing, The Catholic Univ., Korea

Associate Professor : Jun Nam-II

---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use of housing in modern Korea, and to draw the interrelation of people and housing.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qualitative research investigated various aspects of housing history among four individuals during the different phases of social and economic transitions. 4 narratives show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ife history, an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housing experiences were closely related to hometown, the relation to birth family at postmarriage, economic status, and the meaning of home.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validity to select the interviewees was proved in that the selection was based on both housing structure type and ownership, and also the research indicated that economic status and housing structure type influenced the entire housing experience of each interviewee. The use of housing varied and the implications of housing lied in social and economic contexts. The use of housing, of which the term was contrived to alternatively described housing consumption modes, and chronology were affected by such individual factors as economic status, familiar relationships, residential location, the meaning and subjectivity of housing.

---

▲주요어(Key Words) : 생애구술사(narrative life history),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경로접근(pathway approach), 미시사회학적 접근(microsociological approach), 주거의 사용(use of housing), 주거유형(structure type of housing), 주거소유권(housing tenure), 주거시설설비(housing facilities and utilities)

---

\* 교신저자 : 홍형옥 (E-mail : hong1215@khu.ac.kr)

## I. 서론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거의 의미와 사용 I(홍형욱 외, 2008)에서 탐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생애구술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측면은 사례가 적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인식론과 존재론적 입장이 명백해야(천혜정, 2004)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생애구술을 통해 나타난 주거경로에서 어떠한 주거사용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내용 분석을 시도한 질적 연구는 인식론과 존재론적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극히 주관적인 나열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onism) 시각을 분명히 하고자하며, 미시사회학적 개념 및 경로접근과 동일한 의미로 각 용어를 사용하면서 각 구술자의 주거의 사용(use of housing)에 대해 분석하는 의의에서 출발한다.

사회구성주의의 적용은 연구자마다 같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몇가지는 첫째, 문화, 역사적 산물은 문화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측면에 의한다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세계에 대한 이해방식은 객관적 관찰의 산물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과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셋째는 타협된 이해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므로 사회구성방식은 무수하며, 각각의 구성은 인간에게 각기 다른 행위를 하도록 하고, 어떠한 구성은 사회적 행동 패턴을 유지하거나 타인을 배제하도록 만든다(Burr, 1995; Gergen, 1994)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시각을 갖는 다함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서로 다른 듯 보이는 주거의 사용이 모두 모여 사회변화를 이루어내며,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이어야 비로소 사회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의 개념을 주거관리의 개념들에 도입한 Franklin과 Clapham은 주거관리가 변하려면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 까지 문화적, 제도적, 조직적, 작업적, 상호주관적 맥락이 모두 변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Franklin & Clapham, 1997)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곧 주거의 사용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사회발전과 기술수준 및 사람들의 의식이 같이 변화해야 주거의 사용이 변화하므로 기술이 발전해도 문화적으로 수용이 안되어 지체현상을 보이면 전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목격되지 않게 된다. 사회전반적으로 보편화되었어도 가족규범적으로 수용이 안되어 개별가족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족생활에의 도입은 늦어지므로 문화규범을 수용하는 집단과 가족규범을 더 중시하는 집단의 주거사용 방식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주거조건과 생활양식의 선택이 달라져 서로 다른 주거경로를 보이게 된다. 그러한 주거경로에서 나타나는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따른 주거의 사용수준에 대해 규범적 주거결함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 하는 것은 가족규범으로 문화규범과

주거조건격차를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현재 50~70대가 된 개인들의 생애과정에 녹아 있는 바와 같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가는 근대화과정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어떻게 경험했고, 내집 마련을 위해 주거조정과 적응을 통한 주거조정(housing adjustment)을 어떻게 하였으며, 욕실과 위생, 식품저장과 냉장고, 연료변화와 부엌 설비와 시설, 난방방식의 변화 및 입식가구의 도입과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했는지 생애구술을 통해 주거사용 연구를 할 때는 사회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 수 있다.

전통주택에서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주택공급정책과 주거 유형의 변화에 기본을 두고 한사람의 생애과정을 미시적으로 읽어낼 때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그에 따른 공간변화와 재료, 시설설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주거경로를 따라 경험적 측면이 상호작용하면서 적용되어간 과정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측면이 바로 질적 접근으로 생애구술을 통해 주거사용을 연구하는 효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규범이나 현 주거조건과 문화규범과의 괴리를 가족규범으로 완화하고 남은 규범적 주거결함이 어떠한가 하는 등의 주거의 의미에 관한 부분은 I 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관점의 소비 즉 사용(use)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고자한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주거의 '사용(use)'은 앞의 연구에서 탐구한 '의미(meaning)'와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이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른 현상을 암시한다.

심리학적 담론에서 '의미'는 의도하거나 의미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의 특성을 나타내 왔다. 반면에 주거의 '사용'은 행동을 조장하는 관념이나 대상물의 이용이라는 명백한 행동을 암시한다. 의미가 정의적이라면 사용은 효율적인 행동을 명시한다. 환경의 요소들이 사용자들에게 사용을 지시하고 무언가를 암시하거나 상징하거나 할 때, 사용은 효율적 반응과 정의적 반응 모두를 포함한다. 의미가 의사소통적 관점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의미는 사용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결국 주거공간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거주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거의 사용은 사회집단,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하며 같은 집단에 속한다하더라도 동질적 집단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주거의 발전이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간은 중요한 변화요소가 되며, 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변화하면 주거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하다(Arias, 1993).

이상과 같은 주거의 사용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시사회학적 인식론과 사회구성주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한국의 근현대를 살아가는 4사람의 주거경로를 설화법을 이용해 수집하여 주거의 '사용'과 그 변화를 해석적으로 읽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술자의 주거의 사용은 시대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되고 조절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고자하며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구술자의 주거유형/주거소유의 변화를 통해 본 주거의 사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구술자의 주거시설설비/연료의 변화를 통해 본 주거의 사용은 어떠한가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설화법을 이용하여 주거경험을 수집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기록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구술자가 인터뷰의 주제와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알고 싶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별히 주거의 의미를 질문하지도 않았고, 주거경험에 대해 주제별로 질문하지도 않았다. 태어나서부터 현재의 집에 살기까지 전 과정을 말해달라고 하였고, 그것이 언제였는지 연도를 직접 말하기도 하고 자녀의 나이와 학년 등으로 확인을 하였다. 주제를 정하여 질문하지 않았으므로 자료의 정리도 생애전반에 걸쳐 구술한 내용을 보고 주제에 맞게 분류하였다.

구술자의 선정기준은 두가지 였다. 첫 번째는 주거경로상 주로 경험한 주거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무엇인가 이다. 단독주택은 다시, 전통한옥, 개량한옥, 절충식주택, 적산가옥, 국민주택, 양옥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국주거의 근현대를 개괄해 볼 때(전남일 외, 2008), 주요 단독주택유형은 전통한옥과 양옥의 단독주택 거주자로 양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거소유권 유형이다. 생애 대부분을 소유한 주택에서 사는 경우와 생애 대부분을 임차한 주택에서 산 경우로 대별하여 주거유형과 조합하였고, 태어난 시기와 지역, 결혼 후의 직계가족과의 관계, 경제력과 집에 대한 사고방식이 주거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내는 차이를 4가지로 유형화한 후 3연구자가 각각 주변에서 수소문한 끝에 가장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 의사를 타진 한 후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직접 방문하여 4~5시간 동안 구술을 들었으며, 인터뷰 도중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술자의 이야기는 녹취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하였다. 구술자 4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 전근대성이 많이 남아 있는 전통마을, 전통한옥 거주자로 선정된 **K씨**(1933년생, 현재 75세, 현거주지 경북 함양군)

제2유형; 전 생애의 대부분을 단독주택, 양옥에 살아온 거주자로 선정된 **L씨**(1938년생, 현재 70세, 현거주지 서울 강남)

제3유형; 아파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자산을 축적한 아파트 거주자로 선정된 **S씨**(1944년생, 현재 64세, 현거주지 경기도 신도시)

제4유형; 주거의 소유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임차 거주자로 선정된 **G씨**(1951년생, 현재 57세, 현거주지 서울 강북)

## II. 주거경험을 통해 본 주거의 사용

주거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사적 변화와 개별가정의 변화와 적용에 대해서 주거 사용(use)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하며, 구술자 개인의 주거경로가 어떻게 사회사적 변화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라 주거경로접근(pathway approach)(Clapham, 2005)의 주요개념인 개인의 정체성(identity)과 생활양식(life style)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미시사회학적 접근의 이론들과 개념에 따라 주거사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1) 주거유형/주거소유의 변화와 주거사용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유형 분류를 보면, 1985년까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분류되다가 1990년에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이 포함되고,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었다. 1970년 이래 2000년까지의 유형별 주택 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급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 95.3%의 단독주택이 80년 87.46%, 90년 66.02%, 2000년 37.13%로 줄었고, 아파트는 1970년 0.77%에서 80년 7.03%, 90년 22.74%에서 2000년 47.73%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난 이유는 급속한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수요를 단위면적 당 주택공급효율이 높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88년 5개년에 걸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인데 이 때도 아파트 위주로 대량공급계획이 짜여져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또한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게 되어 공동주택건설이 촉진되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김호철, 2004). 또한 시설설비(입식 부엌, 온수욕실, 수세식 화장실)가 우수한 아파트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편의성 제고에 매력적이었고, 비슷한 계층을 불러 모음으로써 중산층 진입의 한 징표로 아파트 거주가 인식되게 된 것도 한 몫을 하였다.

1970년에서 1975년 사이는 주거생활의 중심축이 농어촌에서

도시로 이전된 시기이다. 1970년에는 농어촌 지역 가구가 48.3%, 도시지역 가구가 42.6%였고, 1972년에는 농어촌가구 비율이 38.2% 인 반면 도시지역은 50%로 증가하여 역전되게 된다. 자가점유율은 전국기준 1970년 71.66%, 1975년 64.08%였는데 도시지역은 50.4%에서 45.3%로 하락하였고, 농어촌도 90.75%에서 87.6%로 감소하여 이혼향도가 대세였다. 1990년부터 1995년 주택공급 절정기에 '내집마련' 구호를 내세워 소유를 부추겼고, 주택 대량공급이 이루어져 GDP대비 7.4~8.9%의 주택투자가 유지되어 주택 매매가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자가점유율은 1990년 49.9%에서 95년 53.3%로 상승하였고 임차가구율은 46.9%에서 44.1%로 하락하였다. 1995~2000년은 주택시장의 격동기로서 자가점유율은 전국기준 1995년 53.32%에서 2000년 54.17%로 상승하였는데, 면부는 83.76%에서 79.66%로 하락한 반면, 도시부는 48.06%에서 2000년 50.22%로 상승하였다.

주택보급율이 95년 86.0%였던 반면, 2000년 96.2%로 증가하였음에도 임차자의 비율은 1995년 전세 33.68%에 월세 16.11%에 달했고, 2000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전세 31.36%에 월세는 15.98%였다(김재익, 2004).

#### (1) 전통적 주거규범에 안주한 소극적 주거적응의 사례

**K씨**는 현재 75세 이다. 한옥에서 태어나 300년 된 사대부가에서 8년간의 시집살이 후 서울에 상경하여 국민주택에 살았고, 한참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파트에 10년을 살았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가 계신 한옥에는 자주 왕래를 하였고, 주 근거지는 서울이었으나 95년에 낙향을 위해 300여년된 한옥을 개조하여 난방과 부엌시설과 목욕시설 일부를 고친 후 96년부터 계속 살고 있다. 이 고향집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아들도 은퇴 후에는 당연히 내려와 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결국에는 실버타운에 갈 생각을 하고 있다.

K씨는 의도적으로 주거생활을 바꾸고자한 적은 없으며, 자의로 집을 구매한 적도 없이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지에 따라 주거생활에 적응을 하였고, 남의 집에 세를 산적은 없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넉넉했고 유구가 남아 있는 지방의 상류주택 거주자가 전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자연스럽게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주거경로가 바뀌는 대로 주거적응을 해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도시생활과 도시의 국민주택과 양옥, 아파트를 경험하였지만 적극적 주거조정이라기 보다는 주거적응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지금은 안방차지를 하고 있는 300여년된 고택은 아직도 '참관택'이라는 별호를 가진 낡은 한옥이지만 이곳에 사는 것에 체념을 동반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입식부엌과 보일러,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기밥솥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편리를 위한 전면개보수보다는 한옥의 원형을 거의 보존하고 있는 상태로 부분개보수에 만족하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한니까 중국에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장자가 은퇴 후에 살도록 물려주고 실버타운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형의 유구를 유지하려는 관념에 실질적인 주거적응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지방에 소재하는 전통한옥 사대부가의 상속과 유지는 K씨에게 양면성을 가진 규범적 주거결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후기산업사회까지 이어져오는 K씨와 같은 주거경로가 지방의 상류주택에 살아온 가족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사용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이다.

**(K씨) 결혼 후 8년, 23살에 개평에 내가 시집을 왔어**  
요....

내가 여기서 딱 8년을 살았어, 이 집에서.-머슴들이 와서 흙이라도 부엌에 좀 부어 가지고 좀 돌아 췌으면 내가 좀 생활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그러고 옛날에는 여름에도 큰 솔은 좌우간 구석에 있어야지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 풍습이 있어 주왕솔이라고 옮기지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솔에다가 밥에 불로 때서 밥을 해야 돼. 하루 세 번 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방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기 지금 있는 거기가 부엌이었어. 여기 집이 불편하다고, 더운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끝에 땀띠가 나가지고 못하지 뭐. 그거는 주왕솔을 갖다가 옮기지 안한다고 해서.

**31살 때-1964년도-**아버님 밥 해드리러 서울로 올라갔지. 아버님하고 내하고 여기는 어머니 계시고 신랑은 직장 가지고 탄 데로 가있고 졸업 해가지고 나는 시아버지 따라가고.... 거기는 조그만 이층인데 지금 생각하면 빛이었던가 몰라. 집장사가 국민주택이라고 해가지고..... 한옥이고 양옥도 아니야. 한옥 비슷하고 양옥도 같고.

**38살 때부터-73년도부터 12년-**서울에 애들 데리고 올라왔지. 서울에 살림을 차렸는데(고향집에) 왔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갔지.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서른여덟에 인자 서울 올라가 살았지. 예는 1남 3녀. 1남 3녀지. 그때만 해도 양옥이지...

**84년도부터 10년-**그 다음에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84년도? 아파트에서 내가 한 십년 있었다. 한 십년. 아버님이 우리 상도동에 있다가 아파트에 이사오고 나서 아버님께서 82살에 돌아가셨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일년 중 8개월은 여기(현재 사는 고향집) 살았지..... 영감이 내 몰래 아파트 계약을 했잖아. 내가 안 내려오려고 하니깐. 아버님 안 계실 때 또 내가 여기서 한 80%는 여기 있었어. 어머니가 집안에 대소사가 많으니까 주로 여기서 많이 생활하셨어. 그리 궁색하지는 않으신데. 그래서 내가 아휴 영감 따라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을 때 영감이 이 집 수리를 했어요.

내가 96년도에 이사를 왔거든. 95년도에 이 집을 수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집을 지은 지 한 300년이 되니까, 거진 아예 밑에 굽 틀이 많이 썩었지만 그래도 단단해요. 우리가 기와를 갈았거든. 갈아도, 그 당시 흙이 좋아가지고 서까래가 많이 썩질 안했더라고. 하나 짓는 만큼 들어갔어요. 부엌에 있었는데, 쪼그마한 벽장 뒷방이라고 시골에 가면 와, 뒷방 있어가지고 우리 옷 갈아입고 할 때.

**96년 귀향이후 현재까지,** 서울로 난 안가고 싶어. 지금 안살아도 된다 싶으면 난 우린 갈 데가 있어. 여기. 지금 주암리 하는 데가 있어. 주암. 아주 산골짜기.

그렇지만은 내가 많이 아팠을 때 내가 있을 데가, 요새 실버타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저거는 저거 생활이 있어. 여기 실버타운 진주가면 있잖아. 나는 구태여 서울 택하지는 않아. ...

(2) 문화규범에 밀려 가족규범을 포기하고 주거조정된 사례

**L씨**는 현재 70세이다. 한옥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커서 인민군이 본부로 쓰게 되어 미아리 한옥으로 이사를 간다. 가족이 늘어나면서 증축을 해서 살다가 이사 가려는 아파트의 공사가 안 끝나 1년간 적산가옥에 살게 된다. 73~76년까지 4년간 아파트에서 산 이외에는 독산동과 사당동에 단독주택을 지어 큰집을 지니면서 넉넉하게 살았다. 이렇게 76~98년까지 22년을 단독주택을 지키고 살다가 98년도에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가족이 많았을 때는 2개호를 쓰다가 지금은 혼자 살고 있으므로 1개호만 쓰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L씨**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많아 매달 반상회까지 자기 집에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세대주택을 모두 분양하였으므로 구분소유권이 각각 있지만 살던 단독주택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세대 주택을 지으니 결국은 내집만 없어지고 말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이 모두 4-5층짜리 다세대 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으로 변하니 내집만 덩그러니 파묻혀 다세대 주택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정책은 89년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본격화(전남일 외, 2008)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일반 단독주택의 일부를 세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형태로서 초기에는 입구를 같이 쓰다가 입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더니 80년대 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있는 완결형 주택을 수직으로 중첩하여 공급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도에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다가구 주택이 법제화 되자 단독주택지역에는 급속히 다세대·다가구주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도에는 서울 주택수의 30%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일 정도로 증가되어 서울의 단독주택지의 경관이 크게 변화(전

남일 외, 2008)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L씨**도 주변의 변화에 거스르지 못하고 대지 108평에 탁구장까지 있는 고급 단독주택을 98년도에 다세대주택으로 짓지 않을 수 없었음을 구술당시에도 아쉬워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버티려고 해도 세태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주거유형의 변화에 대해 **L씨**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법상으로는 구분소유권자의 한사람임에 지나지 않으나 과거의 집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반상회를 스스로 개최하면서 건물의 관리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어찌보면 과거의 소유권자였다는 것이 **L씨**에게는 규범적 주거결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주거사용 방식에 있어서 주거조정보다는 주거적응을 하게끔 하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씨) 66년** 결혼하면서 시댁은 텃 지었는데 국민주택은 아니에요. 시누와 시부님과 같이 살았어요. 마루방이 찬방인데 부엌에서 편하게 식사를 여기서 했어. 어른들 계실 때는 상을 받쳐 갖구 가야 되는데 부엌이 멀어 갖구 불편했어. 지붕은 슬레이트 인거 같애.

**72~73년,** 당산동 시범아파트에 갈려는데 공사가 안 끝나서 적산가옥에서 1년을 살았어. 일본식이야 세를 살았는데 다다미방이 있었어.

**73~76년,** 당산동에 있는 시범아파트인데 광이 하나도 없고 다용도실이 되어 있구. 쓰레기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 배란다는 없었어요. 24평짜리인데 시부님도 같이 갔는데 시아버님이 굉장히 불평을 했어요. 5층짜리라 걸어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니까...

**76~78년,** 독산동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 이층집을 튼튼하게 지었어. 공장 건설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으니까 기초공사를 너무너무 잘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주변이 너무 다 공장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집을 너무 싫어했어요. 거실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예식장이냐고 할 정도로 마루를 크게 했어요. 설계는 남편이 했어. 식당도 아주 커요. 시누님도 같이 살았어.

**78~98년,** 사당동 이 집은 108평인데 반듯해요. 시어머니가 미국 가서 안방두 쓰구, 방1은 일하는 애가 썼어. 부엌에 딸린 방. 부엌이 굉장히 컸어. 식당이 굉장히 컸어요. 큰애 중학교 1학년 부터 지금까지 이 터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라 불편했어. 여자들 할일이 많구, 대문앞도 넓으니까 쓸어도 조금있으면 지저분해지고. 완전히 나는 노동자드라구. 친구들은 아파트로 많이 갔어요. 지하는 차고와 방이 쪼그만한게 하나, 창고가 하나 있었어. 계단이 집안에서 올라가니까 세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98~현재,** 여기 안 살고 딴 데로 가야하는데 주변에

개발추세도 있었구. 그래서 다세대로 짓게 되었지. 다세대 주택으로 짓고 402호 404호 두집 쓸 때는 좋았어요. 여기서 큰아들, 둘째 유학가구, 막내하고 살다가 아들도 결혼해서 나가구, 두내외 살다가 영감도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아요. 팔았으면 좋겠는데 집 내놔도 구경오는 사람도 없어요. 집만 없어지고 정말 안 좋아요. 개인주택으로 계속 살 수 없는 게 주변이 다 올라가니까 우리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 평생 중에 끝에 살았던 집이 제일 애착이 가.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집으로 변한 게 너무 안 좋아요.

### (3) 투기만연의 문화규범에 편승하여 규범적 주거결함을 만회한 사례

S씨는 현재 64세 이다. 1950년 초등학교 때까지는 적산가옥에 살다가 결혼 전까지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한옥에 거주하였고, 결혼 후에도 60년대 말까지는 한옥에 거주하였다. 특이한 점은 결혼 후에도 오빠 혹은 언니와 함께 살았고, 남편이 직장을 따라 옮겨도 72년도까지는 친정가족들과 같이 살았다. 80년도까지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동하면서 살던 집을 팔아 목돈을 마련한 후 아파트를 사고 팔아 집을 계속 늘려나갔다. 81년도에는 사놓았던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91년에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고 살던 아파트는 전세 놓고 싼 지역으로 전세를 간다.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전세를 살았던 것이다. 90~99년까지는 관사에 살면서 투자로 아파트를 계속 사들인다. 2000년에는 아파트 2채는 전세놓고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큰 아들집, 작은 아들집과 결혼한 딸의 아파트까지 한해에 4채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분양가보다도 싸게 산 84평 아파트에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다.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절약이 되겠지만 귀찮아서 싫다고 한다. 구술당시 세를 준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었다.

S씨는 젊어서부터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경제관념이 투철하였다. 그런데 과친 개발 특수의 효과가 미치고 있었던 지역에 살면서 하루가 달라지는 집값의 상승이 투자심리에 불을 붙이게 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심지어는 내 아파트를 두고 부족한 비용 충당을 위해 세를 살기도 하고, 집값을 충당하기 위해 좁은 집에 세를 살면서 방이 없어 딸이 거실에서 기거를 한다든지, 아들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며 과외를 못시키니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격려하는 등 아파트 투자는 당시의 문화규범을 뛰어 넘는 수준의 가족규범으로 작용하면서 여타 가족생활에도 제약이 된다. 그러나 가족들은 투자를 위한 이사를 당연시하는 행동적 성향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도 따라가며, 결과적으로 S씨에게 동조를 하게 되고 은퇴 후에 가족들로부터 자산축적에 대한 찬사를 듣는 것으로 보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1962~66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전후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였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이 제정되었으며, 대한주택영단을 대한주택공사로 개명하면서 중산층 아파트건설을 시작하였고, 62년도에는 마포아파트 3개동이 우선 건설되었다(전남일 외, 2008). 63년도에는 공영주택법이 제정되고, 64년도에는 생활혁명의 상징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마포아파트 4개동이 추가 건설되었다. 67~71년도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70년 11월 남서울 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 70년대 초 반포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72~81년 주택건설 10개년계획이 발표되었고, 72~76년도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었으며, 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발효되면서 76년 11개 아파트 지구를 발표하여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77~81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에는 도시주택부족률이 79년에 39%에 이르렀는데 77년 주택청약제도, 분양가 상한제, 78년 선분양제도 등으로 과열된 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여하였다. 80년도에는 과친신도시를 영국식 뉴타운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건설하였고, 82~86년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당시에는 83년도에 목동신시가지 개발을 착공하였다. 85년 까지만 해도 전국의 아파트는 13.4%였다. 80년대 후반에는 87년 반주문식아파트, 복층아파트 등이 등장하면서 아파트가 다변화되기 시작하였다. 87~91년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진행되면서 88올림픽이후 89년 분당,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며 신도시 시대가 열린다, 상업지역의 경우 800~1000%까지 허용하여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의 길이 열리고, 88년 건축법 시행령에 오피스텔이 등장하며, 90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법제화되는 등 주거유형이 다각화된다. 보급률 증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을 300~400%까지 허용하는 등 주거단지의 질보다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미분양아파트가 많아지자 마케팅전략으로 평면차별화, 자사명 브랜드 도입과 내장재 고급화 전략 등이 등장한다. 친환경과 삶의 질이라는 화두가 아파트 건축에 거론되기 시작하여 96년 모델하우스에는 각종 첨단설비가 준비하게 되고, 98년 분양가 자율화가 도입되어 평당 1,000만원 이상 시대가 열리며, 97년 '살기 좋은 아파트 상'이 제정되는 등(전남일 외, 2008) 아파트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소비자로부터 평가받는 시대가 도래한다.

S씨는 80년 과친신도시 개발 당시 사당동에 거주하면서 개발 붐에 편승하기 시작하였다. 한번 움직이면 1억씩 한다거나 남편의 힘으로는 어렵도 없었다거나 하는 등의 표현에서 자부심을 보였으며, 다른 계약을 뛰어 넘는 투자효과가 주거경로 과정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규범적 주거결함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는 신도시아파트는 분양가보다도 싸게 입주를 하였고, 도심에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있다면서 아직도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5씨) 신혼기/60년대 말**, 4만원으로 얻은 집은 집안 오빠의 집이었는데 장짓문으로 가려진 방이 있고, 진짜 한식집이고 마루도 이렇게 조각마루(우물마루). 절처럼. 대청두 있구, 아랫방 옷방도 있으면서 그 방 뒤에 쪽방도 붙은 거 있죠 내가 살던 방이 사랑채 방인데 높은 마루(누마루)도 있구 방 저쪽에 방이 하나가 있구 장지문 사이로 쪼그만 방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71~72년**, 서울 성남에 4개월 정도 임시로 살다가, 그 집은 부엌 통해서 방에 들어가는 세뇌 먹으려고 지은 집이었어요. 임시로 이부자리하고 밥 끓여 먹을 것만 갖구 겨울을 냈어요. 서울에 와야하는데 언니가 돈을 모두 다 빌려가서 언니네 집에 같이 살았어요, 양육인데 얘기 하나 테리고 갔는데 밥은 따로 해먹었어요. 부엌은 따로 없는데 아궁이는 따로 있구, 애 아빠가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나. 집은 네모난데 부엌과 화장실이 있구 안방과 방, 여기 방이 또 하나. 내가 쓰던 방이 큰 방이었어. 현관있구. 한 2년 살았나?

**72년~80년 사이**, 사당동집-의정부 셋집에서 1년을 살고 다시 사당동집-사당동 다른집-반포아파트는 사는 즉시 전세놓고 수원 전세 아파트로-진해 관사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다녔다.

전근이 되어 방을 얻으려고 사당동에 갔더니 130만원 을 주면 집을 살게 있대요. 집장사들이 똑같은 집을 5채 나란히 지어놓고... 지금 총신대역 시장 골목인데 옛날에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 이주 시킨 달동네였어. 산경사가 많이 지고, 5평씩 컸대나? 우리사는 그런집이 아니고.. 리어카 정도만 겨우 들어가요. 대지가 25평인데 집이 이렇게 앉았어. 딱 붙어 가지고

**꿈의 궁전 반포 아파트(1981년)**:- 이사를 들어 온 것은 81년도야. 사당동 집에 살 때 친구집에 가 보면 글로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91년도~98년까지**, 91년도부터 분당이 생겼거든. 분당 새 아파트를 신도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도 나도 신경이 여기 와 있는데, 나도 그때 집이 한참 필요한 때이니가 신경이 곤두섰지요. 내일부터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분양만 하면 넣는 거 예요. 분당하면 분당 넣고 분당 안하고 산본 하면 저쪽 산본 넣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넣었어요. 13번째 될 때까지. 한번은 11번째인 가 언젠가 한번은 후보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건 해당이 없고. 그래서 13번째에 넣었는데, 그때가 인제 정자동 이에요.... 망설이다가 전철역에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전철역 옆에 거기다 했는데 그때 2970만원 한 3000만원 다 돼요. 채권의 최고액이거든요.... 돈을 조금만 들이려고 채권액을 473만원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2970만원을

썼는데 내가 채권 등록을 보니까 끝에서 세 번째인가 450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금 쓰고 된 사람에 해당돼. 조금 쓴 사람 중에 끝에서 세 번째가 돼.

그래갖구 이제 분양이 되니까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를 놓고 싸고 넓은 집을 인제 찾으러 다녔지.

**2000년부터2년** 살다가 전세를 놓고 전세를 2억 4천을 받았어요. 2억 4천에 전세를 놓고 그때 퇴직하면서 뒤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인 돈 이렇게 해갖고.... 돈을 좀 보태갖고 이걸 샀어요. 정자동 아파트하고 반포 아파트는 전세주고... 그래서 요 근래 보면 전세가 매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우선 전세 놓은 돈을 주먹에 쥐고 있으면서 여기 분양을 누구누구 이리면서 2년 지나면 전세를 또 올려 받고 또 올려 받고 이러니까 그거를 넉넉히 놓고도 돈이 남아.

정자동 우성 아파트 그 집을 아파트로 분양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증여를 했어... 내일 모레 기준지가를 올려서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증여를 했죠. 개 이름으로 두 개가 되잖아. 이거를 오빠 이름으로 돌려놔어

(4) 문화규범보다 가족규범을 신봉하여 주거적응한 사례

**G씨**는 태어난후 10살 때까지 일본식 관사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까지는 절충식의 주상병용의 학원 집에 살았다. 서울에 상경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계속 세를 살게 되는데 결혼 이후 현재까지 방 하나 아니면 2개를 쓰면서 남의 집에 세를 살았다. 때로는 양육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육이기도 하였고 짐장사집이기도 하였다. 방 1~2개인 것은 매한가지이고 독립적인 부엌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때까지는 한방에서 살았다. 95년도에 분당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에 세를 주었다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7년 만에 팔고 만다. 단지, 살지도 않을 것이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집을 판 이유였다. 현재도 세를 살고 있지만 노후 걱정은 안한다. 아이가 독립을 하고 난후에 시골에 가서 살면 된다는 것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은 피호처 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두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 사는 집은 독립적인 주택으로서의 완결성을 가진 다세대주택이다. 즉 집이 작기는 해도 내부에 방2개와 거실, 목욕탕과 부엌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후 주택보급을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G씨**가 태어난 1950년 당시는 6.25 전쟁으로 피난민이 25만명이어서 피난민 수용 임시조치법이 제정 될 정도였다. 정부는 사회국 주택과를 두었고 적산가옥 관리 정책을 입안하여 연구자 우선매입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산가옥을 불하 받았다. 1952년 피난민은 200만이었다. 1956년 전쟁재해 복구를 위해 2년간 6,230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태부족이어서 57년 민영 ICA 주택도입, 58~61년 국민주택단지 건설, 58년

주택부채의 표준화와 조립화를 시도하였고, 1960~70년대는 개발주의적 근대화기로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농현상이 급증(전남일 외, 2008)하였다.

사회사적으로 70~80년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꽃을 피우던 시기였다. 1972~1981년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을 세웠으나 79년에도 도시부족률이 39%에 달하였고, 내집 마련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주택보급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각종 정책과 맞물려 너도나도 아파트 구매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다. 그래도 주택이 모자라 임차율이 개선되지 않자 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89년 주택 200만호 건설이 발표되었다(전남일 외, 2008).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90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법제화되면서, 95년 가회동 1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지정으로 인해 도시형 한옥으로 덮여 있던 지역이 거의 다세대·다가구주택지역으로 변모할 정도로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몸살을 앓게 된다.

주택보급율이 어느정도 진전되자 주거복지에도 눈을 돌리게 되는데, 90년 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어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복지 개념이 등장하고, 2002년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추진된다. 94년 저소득주민을 위한 불량주거지 재개발법이 발효되고, 96년 제2차 세계주거회의에서 주거권이 주목받으면서 99년 주거기본법 제정이 주창되게 된다. 2000년 최저주거기준이 고시되었는데 당시에 침실수기준 미달가구가 14.6%, 부엌 및 화장실 미달가구가 5.2%였다. 2001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개명되면서 양보다는 질로 문화규범이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전남일 외, 2008).

50년 전쟁 발발이후 복구과정에서 산업화와 주택보급을 증진, 전도시 주택 아파트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도 G씨는 내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고, 7년간 분양된 아파트를 소유는 하였지만 살아본 경험이 없다. 전 생애과정을 들여다보면 G씨는 가난하기도 하였지만 주거소유에 초연하여 내 집으로 이사를 갈 기회 앞에서도 자녀통학이 우선, 남편의 소신이 우선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내집을 두고서도 세를 살고, 자녀를 기숙사 있는 학교에 가도록 유도하면서까지 소유아파트 수를 늘려 자산을 축적해온 S씨와는 상당히 다른 주거사용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씨에게 집은 피호처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주거사용도 최소한의 피호처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Morris와 Winter(1978)는 문화규범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살아온 가족은 문화규범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고 가족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이론이 뒷받침되는 사례였다. 결국 G씨는 독자적 주거가치관을 구축하였고, 크게 규범적 주거결함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G씨) 73년도 결혼하던 해에 이사를 갔어요. 이 집도

부엌이 없는 집인데 이 집 처마하고 다음 집하고 사이를 이어가지고 아궁이만 있으면 부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집이지. 여기도 방 하나지 이집도 세주기 위해서 만든 집이 아니야.

74~75년도:그다음 창동으로 이사 갔어요. 이게 전형적인 집장사집들. 이게 전부 변두리잖아요. 요기 이때가 집장사집들이 막 지은 집인 거 같아요.

76년도:그 다음에 쌍문동 집은 이집도 세내기 위해서. 방 하나 부엌 하나. 찌그덕 찌그덕 하던 때예요 여기서 또 다시 이사 가서 방 하나 부엌 하나인 집.

77년도:우리 동창 하나가 지네 집이 하나 있는데 여러 채 있는데 여기 와서 살면 어떠냐 그래서. 이게 동창 부모네 집이지. 해화동에 전통적인 한옥. 이집도 아궁이 밖에 없어. 전체 세를 졌는데 전체 세를 준 게 아니라 안채를 누구한테 주고 어떤 집이 이집을 안 쓰겠다고 했나 어떻게 해서 내가 방하고 마루 쪽을 했어요.

78년도:성북동 집으로. 뒤가 절벽인데 뒤에다가 거기가 가건물 식으로 방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방 하나 만들었는데 방속에 장롱이 안 들어가. 그래서 장롱 문을 띠고 장롱을 쪽을 냈어요. 이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어.

79~81년도:미아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집은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도 밑에서 올라간 경사진 집이지. 이집부터가 새로 집 남 세주기 위한 미니이층인데...내가 말을 안 해요 주인하고. 집에만 있어 방에만.... 방은 다 하나예요. 두 개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다 하나예요. 전세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다 월세예요.

82년도:변두리 변두리로 나가다가 싸구려에서 옥수동을 갔어요. 여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진 월세예요. 전세였다가 월세로 온 거예요.

84~89년:집이 팔렸어. 이 장위동 반지하집에서 방 하나 부엌 하나 다락. 여기서 애가 인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요.--여기서 1년 딱 살았어요. 일년 딱 살구. 여기서 그다음 이사 간 집에서 5년 살았어요. 이집도 방하나 부엌 하나네.

89~96년도:학교 엄마가 또 보구서, 거기보다는 우리 집이 나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사 가니까 자기네서 살아라, 그래서 이집으로 갔어요. 어..... 그러니까 초등 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지방이 생긴 거야.

96~현재:96년도에 이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주인이 없이 내가 살잖아요. 내가. 근데 이집에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독체는 아니예요.--지금 집에서 10년째. 이집에서 온수가 나와요. 비와도 인제 뭐. 이거는 요즘 지하에다 공장하고, 1층 2층 살림집. 그러니까 다 구 주택이지. 거 한 십팔평 아파트라고 보면 돼. 구조가 방 2개. 이게 계단을 올라가요. 일단 한번은. 이게 현관문



이거든요.

**살아보지 못하고 판 아파트;**분당에 인제 아파트를 했는데. 95년도에 입주인데 95년도부터 그냥 비워뒀어요. 우리가 글로 깔라고 애 대학 들어가면..... 내일 이사 가요 인제. 근데 애가 그러는 거야. "엄마, 공부 좀 해야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이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한테 해줄게 뭐 있느냐? 시간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이사 가는데, 오늘 저기 부동산에 했더니까. 아침에 했는데, 세를 봤다구. 그래서 세를 7년간 봤나? 8년간 봤나? 그랬다가 2003년도에 팔았죠.....

## 2) 주거시설설비/연료의 변화와 주거사용

가전제품, 주거시설설비와 연료사용의 변화과정을 보면 1960년대부터 획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59년 라디오가 생산되었고, 1960년에는 선풍기, 1961년 전화기, 1965년에 냉장고, 1966년에 흑백 TV, 1969년에 세탁기가 생산되어 보급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1974년에 가스레인지, 컬러 TV가 보급되었고 1978년에 전자레인지, 1979년에 VTR, 진공청소기가 개발되고 대량생산되었다. 198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었고, 1988년 식기세척기가 개발되었는데, 산업화 초기에는 일부 상류층만 사용하던 것이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해지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점차 확산되었다. 냉장고를 보면, 1970년에 전국 2.0%만 사용하였으나 1990년에는 보유율이 110%로 거의 모든 가정에서 1대 이상 소유하였다(김성희, 2002).

연료의 변화를 보면, 1950년대 까지도 주로 임산연료를 사용하였으나 1950년 이후는 연탄이 등장하면서 점차 감소하였는데 농촌에서는 1985년까지도 41.5%가 임산연료를 취사용으로 사용하였고, 1960년대까지도 풍로는 아궁이 보조로 취사기구로 사용되었다. 연탄이 일반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전쟁이후 산이 황폐해지고 나무의 남벌이 단속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연탄을 취사에 사용하는 가구는 1985년까지 전국 48.2%에 달하였고 1990년도에 10.3%가 연탄을 취사에 사용하였다(김성희, 2002).

석유곤로는 1920년대에 소개되었으나 1966년 연탄 파동이 일어나면서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1969년 석유곤로의 보유율은 62.1%에 달했고, 석유스토브의 보유율은 22.9%여서 1970년대에 도시에서는 취사연료로 연탄과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가스가 값싸게 공급되면서 석유연료는 급속히 가스로 대체되었다. 가스는 1973년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도시에서는 1975년 0.8%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0년 6.1%, 1985년 26.4%, 1990년 81.9%로 사용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군부에서는 1990년에야 50%를 넘어섰다. 가스공급과 더불어 가스레인지도 급격히 보급이 증가하여 1991년에 보급률이 전국 98.5%에 이르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취사도구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였다(김성희, 2002).

전기밥솥 등 취사도구의 전기화는 197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전기의 공급을 보면, 1929년에는 전국 가구의 6%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전력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가전기기들도 본격적으로 개발보급되기 시작하여 1975년 정부터 여성잡지에는 전기밥솥, 전자밥통, 같은 전기사용 취사도구 광고들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에 서울 주부의 85%가 전기밥솥, 94%가 보온밥통, 70%가 전기프라이팬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전기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비율은 1985년도에 1.2%, 1991년도에 2.7%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자레인지는 1989년에 15%, 1993년에 45%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보급되었다(김성희, 2002).

난방을 위한 연료의 사용(김성희, 2002)을 보면, 장작에서 연탄으로의 변화가 있었지만 구들과 아궁이로 이루어진 난방은 1970년대까지도 큰 변화가 없었다. 보일러가 보급되면서 구들과 아궁이가 사라지게 되는데, 보일러는 1985년에 전국 53.4%, 시부 68.1%, 군부 34.5% 보급되었고, 1990년에는 전국 74.1%, 시부 76.4%, 군부 67.3%의 보급률을 보이면서 포화되었다. 보일러가 보급되면서 온수도 공급되었고, 난방과 취사가 분리되어 부엌의 입식화도 가능해졌으며, 옷 목과 아랫목의 구분도 사라졌고 온도조절도 용이해졌다. 보일러의 연료는 1985년에 연탄이 50.4%, 기름이 2.7%, 가스가 0.3%였고, 1990년까지도 연탄이 48.67%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기름보일러는 20.0%, 가스보일러는 5.2%로 점차 연탄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아파트의 보급은 1970년 전국주택의 0.77%, 1975년 1.89%, 1980년 7.03%, 1985년 13.46%, 1990년 22.74%, 1995년 37.53%, 2000년, 47.73%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설설비의 각종 지표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입식부엌을 보면, 전국기준 1980년 18.2%, 1985년 34.6%, 1990년 52.4%, 1995년 84.1%, 2000년 94.3%로 증가하였고, 목욕시설을 갖춘 가구도 전국기준으로 1980년 10.0%, 1985년 20.0%, 1990년 34.1%, 1995년 74.8%, 2000년 87.4%로 증가하였다. 상수도 시설은 전국기준으로 1980년 51.2%, 1990년 76.6%, 2000년 87%로 증가하였다(김재익, 2002).

난방방식도 20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전국 기준으로 재래식 아궁이는 1980년만 해도 전국 37.9%가 사용하였는데 1990년에 5.8%, 2000년에는 0.8%로 줄었다, 연탄아궁이는 1980년 42.5%였는데, 1990년 14.1%, 2000년에 0.3%로 줄었다. 연탄보일러는 1980년 13.9%였는데 1985년 50.4%로 최고점을 보이다가 점차 줄어들어 2000년에는 1.5%로 거의 사라지고 있다. 반면에 기름보일러는 1980년 2.3%였는데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국 40.8%가 사용하고 있다. 가스보일러는 1985년 0.3%가 사용하였는데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국

39.9%가 사용하고 있다. 2000년 통계를 보면, 보일러와 가스보일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중앙난방이 8.3%, 지역난방이 6.4%, 전기보일러가 1.6%로 분포(김재익, 2002)되어 있다.

(1) K씨의 주거경로에서 본 시설설비, 연료의 사용

1933년에 태어난 K씨는 아궁이에 불을 때어 난방과 취사를 하다가 64년도 33세에 서울의 국민주택에 거주하면서 처음으로 레일식 연탄아궁이로 난방을 하였다. 수도도 집에 없어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빨래는 개울에서 하였다. 64년도 국민주택에 살면서 화장실이 실내와 마당에 있었고, 수도도 있고, 목욕탕도 있는 집에서 살게 되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뜨거운 물을 넣는 유담프를 보조난방을 위해 사용하였다.

가스렌지를 사용한 것은 상도동 단독주택에 살던 73년도 부터이다. 이후 12년간 연탄아궁이를 이용해 난방을 하였고, 중간에 전기밥솥을 들여 놓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낭비를 한다고 그럴까봐 숨겨 놓았었다고 한다. 84년도부터 10년간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RCA 냉장고와 TV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자주 오가는 고향집은 여전히 재래식 부엌이었고, 중간에 전화도 놓았다.

95년 고향집을 수리하고 96년부터 고향집에 살고 있는데 집안에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실을 넣는 개조를 하였고, 보일러를 놓아 따뜻하게 살았다고 회고하였다. 사랑채는 대청에 유리문이 있지만 안채에는 없다. 별채는 여전히 아궁이에 불을 때어 난방을 하고 한데 변소를 사용한다. 현재, 전통의 방식과 현대적인 시설설비를 차마다 적절히 적용하여 살고 있다.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경험하였음에도 불편한 현재의 집에 사는 것을 당연시하며 부분개보수를 다행스러워한다. 누세동거를 해온 이집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장자에게 물려 줄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감추지 않는 점에서 집이 가문과 가족의 연속을 위한 매개체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씨)23살 시집생활.**(겨울에 세숫물을)어머님은 안 떠다 드렸지만 아버님은 꼭 떠다 드렸지, 저쪽 마루로 양치 물하고 마루에서 세수하셔.-그런데 부엌이 굉장히 추웠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이만치 낮아. 방하고 우리 집이 조금 높거든.-부엌에 큰방 아궁이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아궁이가 있어. 옛날에는 여기가 뒷방이었어. 뒷방이 있고 다락이 있었거든. 요문을 열어가지고는 다락에 올라갔어요. 다락에 올라갔는데 부엌에 아궁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굴뚝이 없어. 바람 타고 불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불이 들어가면 바람이 불면 불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시집을 와서 나는 치마가 성한 게 하나도 없어. 바람을 타가지고 전부 다 타. 아무리 씻어도 저고리 소매가 때가 안 져. 결국 자주 물들이거나 꺼먼 물로 들여야

입어 그거를. 아무리 씻어도 지지를 얹어요. 속치마 하고는. 문턱이 있잖아 부엌이 낮고 하나까. 이리 올라갈 때 한복을 꼭 입었으니까.- (우물)은 없지. 물은 머슴이 지어다 날라. 여기는 우물 못 파잖아. 빨래는 앞에 개울이 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옛날에는 여기 뒤 개울에는 물이 많이 없고 앞개울이 좋아서 옛날에는 물을 먹었어. 씻고 보리쌀 같은 거는 여기서 씻고 빨래는 거기서 하는데 손이 말도 못하지. 머슴들 옷도 씻어줘. 설것이는 부엌에서 하지. 물 길어다 주는 거 가지고 세제를 못 쓰게 했어. 기름기 있는 거는 재로 가지고 하면 참 잘 닦여요.

**시집 개평에서 8년(64년까지);** 내가 여기서 딱 8년을 살았어, 이 집에서.-머슴들이 와서 흙이라도 부엌에 좀 부어 가지고 좀 돌아 줬으면 내가 좀 생활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그리고 옛날에는 여름에도 큰 술은 좌우간 구석에 있어야지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 풍습이 있어 주왕술이라고 옮기지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술에다가 밤에 불로 때서 밤을 해야 돼. 하루 세 번 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기 지금 있는 거기가 부엌이었어. 여기 집이 불 땀다고, 더운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끝에 땀띠가 나가지고 못하지 뭐. 그거는 주왕술을 갖다가 옮기지 안한다고 해서.

**31살-1964년도;** 국민주택인데 부엌은 마루 뚜껑을 열어가지고 불 때고 아궁이 넣고 뚜껑을 닫고 부엌은 아예 조그마한 것도 없고. 세멘으로 가지고 이레 고마 앉아서 밥하고. 연탄 아니지 나무도 하고. 한참 있다가 아버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연탄을 내루식(레일식)으로 했어. 처음엔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가족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2층에 올라가면 2층에는 다다미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마루 아니고 다다미, 일본말 다다미지. 이게 있어 가지고 자는 사람들이 유담프(양철통 같은 것인데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꼭 껴안고 자던 것)라고 그러나. 모두 가지고 와서 물을 끓여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식모 아줌마한테 물 끓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고 갔어. 그 사람들도 엄청 고생했지. 화장실은 안에 하나 있었고 밖에 하나 있었고 대문채에 하나 지었지. 근데 안에 있는 거는 우리 아버님께서 쓰시니까 나도 거기를 쓰지를 않았어. 목욕탕은 밖에 대문 있는데 거기 있었거든. 대문 들어와 가지고 밖에 수도가 있었어. 밖에 수도가 하나 있었는데 밤에 아무도 없으면 목욕 하는 거라. 여름에. 겨울에는 목욕탕 가서 하지만은.- 그렇게 아버님한테 시중하고 딱 8년인가를 살았다.

**38살부터 ~73년도부터 12년;** 상도동 집에 있을 때 아버님께서 가스렌지를 못 사게 하시더라고. 73년 될 거라. 가스렌지를 못 사게 하시더라고. 왜 못 사게 하나면 가스렌지는 낭비된다고. 애들 공부하는데 낭비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었어. 낭비라고 애들 공부 시켜야 된다고 안 된다 하셨거든. 연탄에 밥을 했는데, 내가 우리 동창들 끼리 계를 해가지고 마마, 송해 나오는 밥술을 하나 샀다. 사가지고 신랑도 무섭고 아버님도 자주 오시니까 무섭고. 애가 벌써 중학교 댕길 때도 됐는데 다락에다 들여놨어요.--

부엌이 처음에는 그냥 연탄, 아버님께서 고치지 못 하기로 하셨고 연탄 때라 하셨으니까. 그냥 밑에 와, 타이루(타일) 박아가지고 내루(레일) 가지고 연탄아궁이 해서 했잖아. 밥은 인자 전기밥솥에 하고.

**84년도부터 10년:** 서울에서는 아파트살면서 이 집(고향집)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고 상태에서. 이래 부엌도 재래식 부엌에. 여기서 있으면서 인자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니까, 편찮으실 뿐 아니고 혼자 외로워하시니까. 냉장고는 나는 밀양 있을 때 샀어. 그때 인자 알씨에이 냉장고 하나 하고 알씨에이 텔레비하고. 밀양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가 낳 때니까. 냉장고 다 끌고 댕겼지. 그때도 대한전선에서 나오는 게 있었지. 그때만 해도 내가 생활이 괜찮았다. 부산서 가면 수입품이 있잖아. 부산 가서.--막내딸 놓고 나서 육십 한 오륙년도에 샀을 거야. 그때 내가 저 농 저거 사고 저 농사고, 경대 이거하고 이걸 통영끼거든(텔레비전도)그때 대한전선에서 나오는 거 있었을 거야. 몰라.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뻘 생활이 좀 괜찮아서 이거 알씨에이 하고, 냉장고 알씨에이 하고 그거 좋아가지고 내가 덮개 덮어놓고 살았어. 전화도 그 때 있었지.

**96년 귀향 이후 현재까지:** 그래서 나는 여 앞에다가 문에 유리를 달았으면 싶어서. 유리를 달았으면. 여기가 지금 문화마을로 지금 지정이 되게끔 확률이 80%래. 문화마을로. 문화마을 되고 나면 손을 못 대거든? 우리가. 물론 집은 우리는 문화재 신청은 싫다고 그랬어. 사랑에는 유리문 있지. 예 사랑에요. 사랑에는 있지만, 앞에 유리문 있어요. 모기도 안 들어오고 파리도 안 들어오고 사랑은 안 고쳤지. 그때 돼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2) L씨의 주거경로에서 본 시설설비, 연료의 사용

L씨는 12살까지 목욕탕이 없는 집에 살았다. 목욕은 공중목욕탕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하였고, 세수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당에서 하였고 빨래는 개천에서 하였다. 60년대 살던 한옥도 목욕탕은 없었고, 수도도 없었으며 마당에서 세수를 하였다. 이때는 연탄을 사용하였다. 66년 살던 불광동 집은 수도는 있었지만 고지대라서 잘 안나와 공동우물에서 물지게를 해다 먹었고, 추울 때는 부엌에서 세수를 하였고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저녁에는 가는 것이 무서웠다고 하였다. 이집에서 처음 냉장고도 생기고 난방은 레일식 연탄아궁이 였다. 66~72년

까지 살았던 상도동 집은 주택은행에서 지은 목욕탕이 따로 있는 양옥이었다. 목욕탕도 따로 있어서 욕조는 없었지만 목욕은 할 수 있었다. 곤로를 사용했고 푸세식인데 번기가 사기로 되었고 뚜껑이 있었다. 73~76년까지 살았던 아파트는 수세식에 욕조도 있었다. 식당은 있었지만 식탁은 없어 그 자리에 밥상을 놓고 먹었는데 시어머니 아파트 사는 것을 싫어 했다고 하였다. 76~78년까지 살았던 독산동집은 기름보일러 바닥난방이어서 거실에서 많이 지냈는데 식당에도 바닥난방이었으나 목욕탕은 라디에터가 있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남편이 들어오면 키고 나가면 꺾기 때문에 난로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냉장고도 있었고 침대생활을 했으며 좋은 오디오가 있었다고 하였다. 수세식에 양변기였는데 이때만 해도 시골에서 온 손님들이 양변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98년에 이집을 다세대주택으로 지었다. 처음에는 2개호를 쓰다가 혼자 남게 되어 1개호만 쓰게 되었는데 이 집은 목욕탕이 영터리라고 하면서 장식적인 측면을 마음에 안 들어 하였다. L씨는 집을 세 번 지어보았다. 독산동집도 좋았지만 사당동 집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였으며 모든 것을 다 갖춘 고급주택을 90년부터 법제화된 다세대·다가구주택 열풍 때문에 주변이 다 바뀌어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두 분양을 해야하니까 저렴하게 지어 오히려 조악한 집에 살게 된 것에 불만이 있고, 없어진 단독주택에 살던 시절을 그리워 하였다.

**(L씨) 60년대:** 미아리 절충식 한옥에 목욕탕은 없고, 방사이는 네짝 미서기문으로 되어 있고, 목욕탕은 없어요. 마당가에서 추우면 부엌에서 더운물 갖다가 여기서 세수를 했어요. 서울 생활하면서 연탄을 썼는데 수도는 없었어요. 우물보다는 펌프가 더 좋은 걸로 바뀐 거죠.

**66년:** 불광동집에 수도가 있는데 잘 안나와서 물지게를 해. 공동우물이 있었구 급수차가 오면 줄을 서. 자주 안오고 고지대는 물이 안나와서 아껴 썼지. 수도꼭지만 나오면 이물로 세수를 하는데 그 물로 행구면 피부가 달라진다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어서 저녁에 가려면 되게 무서웠지. 마루는 무척 춥고 벽에 성애가 껴요. 김장을 하면 바깥에서 하는데 옷이 다 얼어요. 김장은 6번에 문었는데 맛은 있지. 여기와서 첫 냉장고도 생겼어. 겨울에는 레일식 연탄을 댔기 때문에 겨울에는 뜨끈 뜨끈했어.

**66~72년:** 상도동으로 이사간 집은 전화가 있었고, 목욕탕이 따로 있고, 주방은 좀 내려가 있었어요. 식당은 없었지요. 주택은행에서 지은 집인데 양옥이에요. 집을 살 때 결정은 다 남편이 해요. 시아버지는 노셨으니까. 뭐 내 의사가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일부분은 우리가 새로 지었어요. 군인한테 세를 주었어요. 밥은 마루에서 먹었고, 곤로도 있었던 것 같애. 욕조는 없어도 목욕도 할 수 있고, 수도가 있었으니까 사기번기가 있었는데 뚜껑을 닫았는데 화장실은 퍼가는 것이었고...

73~76년, 5층 시범아파트인데 옥조도 있었구 수세식이었고, 식당은 자바라를 담아 놓으면 안보이게. 식탁은 없었는데 상을 거기다 놓고 먹었지. 시부님은 아파트 사는 것에 불만이 있었지. 아파트 밑에는 향아리를 갖다놓고 김장을 묵었어. 된장, 고추장은 옥상에 있었어. 향아리를 스폰지 같은 것으로 싸매, 그러면 안 얼어요. 꼭대기에서 그렇게 동치미도 담가 먹고 그랬어.

76~78년, 독산동 2층집은 넓어서 좋았죠. 기름보일러였는데, 큰애가 혼자 쓰고, 그 밑에 아이들 둘이 같이 쓰고, 정원은 그저 그런데 정리하는데 돈이 들더라구. 일하는 사람이 없이 파출부를 불러 썼는데 이젠 자주 뭐 살림꾼이 됐지. 바닥난방은 다 했는데 주로 거실에서 많이 지냈어요. 난로는 큰 걸 썼어. 보일러를 때도 난로를 쬐 때야 되더라구. 그 때는 라지에타를 박스를 해서 다 썼었어. 보일러는 남자가 나가면 끄는 거고 남자가 들어오면 키는 거고 그래. 전기불도 그렇고, 냉장고가 생겼고 이때부터는 기름만 땀어요. 우리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두개 놓여 있었어. 오디오시스템이 유명해서 누가 왓도 부러워했어.

78~98년, 사당동 이집은 108평인데 반듯해요. 식당이 굉장히 컸는데 천장이 높았고 그 위는 탁구장이었어요. 건평에 넣지 않으려고 천장이 높았지. 잔디에 잡풀 뽑느라고. 처음에는 재밌어 했는데 지겹더라구. 커다란 난로 놓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했던 거 같애. 식당에 깔려있고 욕실에는 라디에터가 있었어. 이집은 수세식이었어. 양변기였어. 시골사람들이 오면 널름 올라 앉아서 일을 보고 그랬다구 웃구 그랬어.

98~현재, 2호를 쓸때는 식탁두 다 저쪽에 있구 이쪽에는 그냥 넓게 쓰구. 베란다가 넓었는데 쓰기가 참 좋아요. 수도도 양쪽에 다 바깥으로 있구. ....그런데 속상해서 그냥 집이 다 없어지구. 이 집은 목욕탕이 다 엉터리에요. 내가 쬐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너무 무관심 했어. 타일 색깔두 그렇구.

### (3) S씨의 주거경로에서 본 시설설비, 연료의 사용

S씨는 초등학교 시절까지 일본식 적산가옥에 살았다. 실내이긴 한데 마루로 되어있고 테만 둘러 놓았다가 나중에는 사기변기로 교체되었으나 푸세식이었고 나무자루가 달린 뚜껑을 덮어 두었다. 밤에는 요강도 썼었다. 이후 결혼 전까지 살던 집은 수도가 없고 공동우물에서 물도 갖고 빨래도 하였다. 나무를 땀는데 나중에는 토탄을 개어 장작위에 놓고 불을 붙이는 난로가 학교에 등장하였다. 토탄을 때면서 아궁이를 개량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는 구공탄을 땀다. 레일식으로 되어 있었고 난방과 취사를 겸하였다. 나중에는 불편하여 연탄 아궁이를 만들어 난방도 하고 취사도 하였는데 너무나 추웠던 기억을 얘기하였다. 60년대 결혼 전까지 살던 집에도 수도가 없어 샘물을 길어다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였는데 하수구는 있었다. 마당에서 세수하고 그러다가 시집 올 무렵 앞집에서 수도를 놓겠다고 해서 68년쯤 수도를 났는데 처음에는 마당에만

났다가 나중에 부엌에도 끌어 들었다. 부엌에 작업대 비슷하게 개수대만 해 놓고 그 옆에 수도를 놓았는데 부엌에 따로 난방이 없으니까 겨울이면 얼곤했다. 부엌에 수도가 있어도 너무 불편했다고 하였다. 이 집에는 대문 밖에 화장실이 있어 밤에는 너무 싫었는데 작은 오빠가 장가가서 새댁이 들어오니까 문열고 대청에서 화장실에 갈 수도 있게 고쳤다는 것이다. 남녀구분 없이 푸세식 화장실이었다. 71~72년 대저동 양옥집도 푸세식이었는데 나중에 고쳐서 화장실로 만들어 세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목욕은 못했다. 겨울에는 화분을 잔뜩 들여 놓고 세면대가 있긴 한데 물이 잘 얼어 사용을 못하고 여름에나 썼다. 부엌에 싱크대는 타일로 붙인 것이고 구공탄 아궁이에 수도도 있었다. 수도는 마당에도 있었다.

72년~80년 사이는 여러 집을 돌아다녔다. 사당동 집은 화장실이 따로 있고 마당에 재래식 화장실과 연탄광이 있었다. 수도는 마당에 하나만 있었는데 공사를 해서 부엌에다가 타이루 싱크대를 만들고 수도를 들었다. 의정부셋집에 살다가 돌아와서 연탄 새마을보일러로 고치니까 끌고루 따뜻했다고 하였다. 사당동 다른 집에 살 때도 새마을 보일러를 썼는데 방을 따뜻하게 해 놔도 외풍이 썼는데 이중창이 아니고 안 비치는 유리를 달고 안방에 보일러를 놓고 방마다 구공탄 난로를 놓고 사용했다. 마루에 소파도 없었고 상차려서 식사를 했다. 그 이후 전세 살던 수원 13평짜리 아파트는 연탄아파트인데 아궁이는 낮고, 부엌 바닥하고 비슷했고 싱크대는 조그맣게 달려 있었다. 화장실도 양변기가 아니고, 연탄광이 있고. 소파는 없었다. 79년도에 진해의 13평 아파트에 살 때도 화장실, 오른쪽에 연탄광, 방 2개 인데 안쪽에 부엌이 있고 연탄 아궁이였다. 나중에 연탄보일러로 바꾸어 주었는데 밥은 석유곤로로 해 먹었다. 81년, 반포아파트에 살 때 라지에터 방식이고 온돌은 안방에 하나 있었고 쓰레기 투입구가 있었지만 냄새나고 바퀴벌레 나오고 그래서 거기를 잘 안썼다. 투입구가 베란다 안쪽에 있는데 거기다 쌀자루를 쌓아 놓고 쓰레기는 밖에 나가 버렸다고 하였다. 쓰레기 버리는 방식도 많이 진화하여 80년대까지만 해도 실내에 쓰레기 투입구가 있었으나 냄새나고 쥐가 들끓자 다음 단계로 복도 밖에 별도의 쓰레기 투입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중국에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로 바뀌게 되었다. S씨는 81년부터 계속 중앙난방 아파트에 살았으므로 구술내용에서 시설설비와 연료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아파트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하였다.

(S씨) 60년대 결혼전까지 살던 집, 수도가 없었어요. 설거지두 샘물을 길어다가 부엌에서 하구. 물을 버리는 데는 있어 갖구 하수구 나가는데 거기다 버리구. 세수하구 뭐 물 텨혀서 하는 것이구 마당에서 하구 그러다가 내가 시집 올 무렵 앞집에서 수도를 놓겠다고 해서 같이 났어요. 68년쯤엔가. 내가 69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처

음에는 마당에만 왔다가 내가 시집오고 나서 부엌에도 끌어 들였어요. 작업대 비슷하게 개수대만 해 갖구. 마루로 이렇게 나무로 된게 있어 갖구 거기다 찬장 놓구, 옆에도마 놓구 그옆에 수도를 놓았는데 부엌에 따로 난방이 없었으니까 막 얼더라구요. 부엌에 수도가 있어도 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살았지.

이 집에는 대문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밤에 갈려면 너무 싫은 거예요. 대청마루에 문이 하나 있으니 요문을 열구 율로 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 걸 안 해 줘 갖구. 다 큰 기집에 들 밤중에 화장실 갈려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작은 오빠가 장가가서 새댁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신경을 써 갖구 여기도 울타리를 쳐 갖구 화장실 이렇게 문열구 대청에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게 해 갖구. 남녀구분없이 그렇게 썼어요. 푸세식이지.

**71~72년 대저동 양옥집:** 내가 언니네 있을 때는 푸세식이었는데 나중에 고치더라구. 화장실에서는 세수하게 되어 있고 목욕은 못해요. 겨울에는 화분 잔뜩 들여 놓고. 세면대가 있긴한데 물이 잘 얼어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더라구. 여름에나 쓸까. 부엌에 싱크대는 있어요. 타일로 붙인 것인데 왜 자찬한거. 맨날 물 부었어. 맨날 닭구. 그래두 아궁이는 구공탄이예요. 부뚜막도 다 타일로 되어 있어. 수도도 거기 있고, 마당에두 있고.

**72년~80년 사이:** 사당동잡-의정부 셋집 다시 사당동잡-사당동 다른집-반포아파트는 사는 즉시 전세놓고 수원 전세 아파트로-진해 관사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다녔다. 사당동집은 골목길에 대문이 여기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방이 2개 있고, 마루가 길구 15평에 방이 4개인데 등기평수로는 11평 3흡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 방2개는 내가 쓰구 2개는 세를 냈어요. 마당에 재래식 화장실과 연탄광이 있어요. 연탄광을 세준사람하고 같이 쓰니 2백장 쌓기도 어렵더라구. 말리면서 때야하니 많이 쌓아야하는데 그래서 스퀘트 지붕 없어 갖구 내가 연탄광을 만들어서 쓰구, 요기 마당이 좁은데도 요만큼은 화단을 만들었어요. 수도가 마당에 하나만 있었는데 공사를 해 갖구 부엌에다가 싱크대를 만들구 수도를 들였어요. 타이루루.

의정부셋집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냥 연탄 때던 집을 내가 연탄 보일러로 고쳤는데 방도 안 뜨시구 그러더라고 새마을보일러라구. 왜 그러니까 부엌에 그냥 달려있어. 찬 물통이. 코일처럼 뚫려갖구 물이 뜨거워지면 방으로 들어가는거. 비닐 호스 같이 생긴거 그걸 놓더라구. 방위에다 회를 조금 깔구서 시커먼거 깔구 콜타르 비슷한거 치댄 것 깔구 거기다가 플라스틱 선을 이렇게 깔구 그 위에다가 회를 하구 그 위에다가 장판을 깔고하니까 골고루 뜨시더라니까.

그냥 아궁이 었을때는 연탄가스 때문에 고생을 한 적도 있죠. 연탄가스 마셔갖구. 애가 막 악을 쓰구 우는데 마당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는거예요. 그랬는데 시원한 공기를 마시니까 금방 깨어났지. 가스가 공포인데 보일러를 놓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 좋더라구. 물덥혀 쓰는 것두 좋구. 나중에는 2개를 놓았지. 하나는 물덥혀쓰구 하나는 밥도 하구. 그래도 곤로는 안썼어요. 곤로를 쓰는 것만 해도 고급이야. 애끼느라구 그랬지. 석유가 비싼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중으로 쓰지는 않았어. 이거만 해도 다 되니까.

사당동 다른집에 지하실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구 찬장은 이쪽에 놓구. 이집에서도 새마을 보일러를 샀어요. 방이 4칸데 2개는 세를 주고, 겨울이면 한방에서 자구 공부방을 저쪽에 해 놓기는 해두. 방을 뜨시게 해 봐도 외풍이 세요. 이중창이 아니고 안비치는 유리를 해 샀는데, 안방에 보일러를 해 샀어요. 방에다 구공탄 난로를 샀어요. 이제 기저귀, 애들 빨래도 다 방에서 말렸지. 마루가 크지요. 집이 23평 이니까. 여름에는 마루를 많이 사용해. 겨울에는 거의 못쓰고, 마루에 소파도 없었어요. 상차려서 먹구 그랬지.

우리가 전세 살던 수원 13평짜리 아파트는 방 2개 아파트인데 엄청 편했지요. 연탄아파트인데 아궁이는 낮어, 부엌 바닥하고 비슷했는데 싱크대는 조그맣게. 저기 잠실 13평짜리 주공아파트랑 똑 같은거야. 화장실도 양변기가 아니야. 납작한게, 연탄광이 있고. 소파는 없었어요.

애아빠가 진해로 가게 되었는데 79년도에. 13평 아파트였어. 마루도 없어 통로만 있구. 방에서 한 발짝 뛰면 화장실. 오른쪽에 연탄광. 방 2개 인데 안쪽에 부엌이 있구. 그냥 연탄 아궁이 었어. 연탄가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는 연탄 보일러로 바꾸어 주더라구. 밥은 석유곤로로 해 먹었는데 석유 애끼느라구 오래도록 연탄을 쓴 것이지요. 석유곤로는 그 때부터 반포와서까지 썼어요.

**81년, 꿈의 궁전 반포아파트:** 소파는 진해에서 산거예요. 라지에터방식이고 온돌은 안방에 하나 있었고 4층인데 쓰레기 투입구가 있었어요. 냄새나고 바퀴벌레 나오고 그래서 거기를 잘 안썼어요. 투입구가 베란다 안쪽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쌀자루 쌓아 놓고 그랬어요. 쓰레기는 밖에 나가 버리고.

(4) G씨의 주거경로에서 본 시설설비, 연료의 사용

G씨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본식 가옥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펌프를 이용해 물을 길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해서 결혼하여 자녀가 장성한 지금까지 세를 살고 있다. 대체로 방이 하나였고, 월세로 시작하여 79년

도부터는 전세를 살고 있다. 별도의 부엌이 없었던 적이 대부분이나 부엌이 있다고 해도 간이부엌이었다. 70년대에는 연탄아궁이이었던 적도 있고 레일식이었던 적도 있다. 수도는 마당에 있었지만 74년도부터는 부엌에 수도가 있었다. 79~81년도에 살던 집은 레일식 연탄아궁이와 석유곤로를 같이 썼다. 아이스박스도 있었고 중고이긴 하지만 냉장고도 있었는데 방에다 놓고 사용했다. 84~89년도에는 반지하에 살았는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소음도 차단되고 좋았다고 하였다.

89년도에 세탁기를 샀고, 새 냉장고를 샀다. 선풍기도 샀고, TV는 79년도부터 있었는데 84년도에 컬러 TV를 샀다. 전기밥솥은 89년, 컴퓨터는 96년도, 오디오는 아이 중학교때 샀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온수가 나오는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다. 보일러실이 창고 역할을 하고, 부엌에는 썩크대가 있고 가스렌지와 마이크로웨이브를 쓰고 있다. 아들 방은 침대, DVD, 오디오, 책상이 있다. 식탁, 컴퓨터가 있고 보일러실에는 세탁기가 들어가 있다. 아파트는 분양을 받아 95년도에 입주 시작되었는데 96년에 입주를 하려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설치하고, 전화 놓고 다음날 이사 가려는데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통학거리가 멀다고 하여 7년간 세를 놓았다가 2003년도에 팔게 된다. G씨는 아들의 편리위주로 모든 결정을 하며, 집을 투자목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는 단지 피호처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과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의 3가지로 되어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3인 가족은 2DK에 29제곱미터(8.8평) 이상이라야 하며, 부부침실이 확보되고,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확보되어야 하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라야 한다. 일반가구 중 3인 이상 단칸방 거주자 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80년에 22.4%, 85년에 20.4%, 90년에는 12.4%, 1995년에는 3.0% 2000년에는 0.7%로서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G씨는 1995년도에도 방수 사용면에서 3.0%에 지나지 않는 주거빈곤가구(박신영, 2002)에 속해 있었고 1996년에야 비로소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빈곤가구의 범주를 벗어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G씨) 70~71년도;** 70년도 이 아궁이는 우리 난방인거죠. 이전 완전히 별개인거죠. 가게에 주인할머니 방이고. 여기는 이게 말하자면 안채야. 이게 주인집이어요. 한옥이 길옆에 있는 집이니까. 길옆에는 다 가게를 내요. 한옥인데 세주려고 잇달아 낸 거 같아요. 이거는 몸체예요. 마루도 근사해. 부엌도 굉장하 커. 이집 여기가 부엌이다. 이집이 부엌이 굉장하 커요.--이게 아궁이니까 연탄이죠... 식사준비는 여기서 하는 거죠. 부엌이란 막힌 데가

없고 한 데죠. 아니 커텐처럼 했더니까. 늘 커텐으로 그릇을 놓아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고 연탄 집인데. 그거를 했지. 집세는 이집이 이만 원에 삼천 원? ..... 내가 결혼하고부터 ..... 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 부엌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마당은 수도 아니었어요. 펌프 이집은 마당이 넓어.

**72년도;** 여기도 부엌은 없어요. 이런 집은 남 세주게끔 안됐잖아요. 여긴 이 뒤에가 집이 들어앉았으면 사방에 땅이 있잖아요. 가운데 들어 앉아가지고 아궁이가 있는데 말하자면 부엌을 만든 셈인가? 아까는 부엌이 없었잖아요. 아궁이만 있었지. 부엌에는 막힌 공간이 없었는데 그걸 만들어 준거야. 위에다 스테이트 같은 투명하게 생긴. 나무로 뼈격뼈격하게 문도 해놓고 못질해가지고. 여기도 물이 없죠.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수도가 없으니까. 이게 세를 놓도록 만든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집은 좀 값나가는 집이었거든. 그런데 세를 다 놓은 거지.

**73년도;** 연탄 때는 집이지. 여기서부터. 이 집은 그냥 아궁이였어. 앞의 집은 레일이었고. 레일식 집에 두 번 살았어. 이집은 안방이 있고 마루 있고. 이게 주인 네 들어가는데, 이게 안방 부엌, 그리고 여기도 방. 이게 옆집하고 사이애다가 쳐서 부엌을 만든 거지. 우리 부엌. 마당은 이게 집체고 여기가 마당이지. 여기가 수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연탄 둘 곳도 없고. 여기가 부엌인데 여기 문이 없고 이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를 주기위해서 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집하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수도세 전기세 줄때 만나. 나는 드나드는 거 외에는 안 해요

**74~75년도;** 방하나 부엌 하나에 부엌이 컸어. 이때 부엌에 수도가 있었어. 이때부터 부엌에 수도가 있었어요. 이때 이집에 또 세를 놓기 위한 집이 구석에 하나 있어가지고 고거를 또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77년도;** 부엌은 없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맞으니까. 여기 밑에 아궁이가 있는 거지. 마루가 넓어가지고 마루애다 부엌살림 놓고 쓰게 됐지.

**79~81년도;** 연탄하고 석유곤로 이 집도 레일이야. 미아동이 지금 세 번이잖아요. 이집이 레일이야 연탄 레일. 지금 다 연탄 가스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스야. 여기서부터 전세야. 전세로 가기위해서 더 꼭대기로 갔어. 제일 꼭대기예요. 여기서도 부엌이 요만한데. 타일이 이때부터는 타일이예요. 타일인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빨래판으로. 이때는 아이스박스. 이 냉장고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친구가 쓰던 거 나 준거야. 이때 냉장고가 있었어. 방은 다 하나예요. 두 개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다 하나예요. 전세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다 월세예요.

냉장고는 방에다 놓죠. 부엌에 냉장고를 넣을 수가 없어요. 부엌이 아궁이가 이 정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 정도 있잖아요. 이만큼 정도 되나 수도꼭지 하나 벽에 붙었고 혼자서 이게 살편 사람 조금 힘들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부뚜막이라는 데를 타일인데 거기에서 방까지 또 문턱이지. 어린애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데야. 이런 집들은 다락이 있었어. 다락이. 그래서 이게 냉장고지. 이집에 다락이 있었어. 다락이 이집도 다락이 있었고 이집도 다락이 있었어. 내가 쓸 수 있는 게 방 하나에 요만한 부엌밖에 없잖아

**82년도** 연탄으로 밥했어. 석유곤로는 이 집이다. 레일, 레일이 힘들거든. 왜냐면 레일은 집어넣으면 물을 못 덥혀잖아요. 여기는 물을 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석유곤로 이집에서 샀어. 여기 이렇게 있을 때는 밤새도록 물이 끓어가지고 그물로 다 해야 되거든. 레일은 방은 뜨듯한데 물을 끓일 수가 없어.-(세수하고 목욕, 머리감기는)압. 부엌이죠. 집에서 머리는 자주 감는데 목욕을 자주가지. 집에선 목욕을 못하니까. 연탄 있는 집은 항상 따뜻한 물이 있잖아. 우리 남편이 하는 게 자기 간단한 건 자기가 빨아요. 따뜻한 물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세수하고 남은 물로 양말 빨고 빨래도 부엌에서 해요. 그럼요. 없다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건 요고하고 방밖에 없어. 근데 이제 다락 있을 땐 거기다 집어넣고 화장실 밖에. 근데 이런 집들이 화장실은 자기네 뭐 할 때는 하고 자기네 화장실 안에 하나 있고 밖에 화장실이 있어. 뭐 우리들 쓰게 하기 위한 거겠지만 자기네들도 쓰지 우리만 쓰라는 거는 아니지.

**84~89년도** 이 집이 반지하야. 근데 이집에서 연탄아궁이 하나하고, 반지하니까 세멘트를 이렇게 올라가지고 아궁이에 올라가서 내가, 아궁이에다 발을 디디고, 수도가 이 평지하고 같아지고, 고기 뭐 세멘트 요만큼해서 그게 개수대야. 그다음에 인제, 철제 그거 뭐 뿔루 해서 거기다 넣고 가스레인지들 이집에서 가스레인지들 했어요..... 반지하에다 방 두 칸을 해서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했는데 그 통로에 수도가 있는 거야. 우리 부엌에 그 꼭대기에 수도가 있고 빨래는 여기 올라와서 해. 반지하니까 통로는 올라오잖아요... 이 지하에서 가 제일 나왔던 생활이었던 거 같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더라구요.

**89~96년도** 여기에서 인제 세탁기, 이사를 가니까 뭐 어떻게 남편이 어떤 뉘를 했던 사람이 세탁기를 하나 사줬어요. 인제 이사했다니까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준 거예요. 새 냉장고하고 난생 처음 세탁기를 쓴 거야. 이집이 89년도거든요? 올림픽 그 다음 해. 그 집에서 처음으로 저기 선풍기를 샀어요. 이집에서

처음으로 선풍기. TV는 미아동 첫째 집. 79년도. 그다음에 칼라TV는 지하실. 84년이니까. 이걸 돈 주고 산 거예요. 난 거의 다 얻어 썼거든. 전기밥솥은 우리 집은 최고급이에요. 전기밥솥. 하하하. 전기밥솥은 89년 이집. 컴퓨터는 96년도지 오디오는 아이 중학교때.-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까지 한방에서 살았어요. 책상 같은 거는 그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에 장롱.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단스라는 게 없는데. 아, 놓을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수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러는데 놓을 곳이 없으니까. 장롱, 책상, 텔레비. 그리고 이 지하 있을 때, 84년 여기 칼라TV, 이때 전화. 이때 전화를 했어요..... 이때 세탁기가 없었어요. 저기 거 지하 5년 살을 때 참 그냥 암울하더라구. 세탁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옆집 세탁기를 빌려가지고 복사 복이 한두 벌이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요. 걸 내가 빨았어. 남의 세탁기로. 그래서 인제 89년도에 세탁기 냉장고가 생겼고,

**96~ 현재**, 아 독채는 아니예요.-지금 집에서 10년째. 이집에서 온수가 나와요. 비와도 인제 뭐. 이거는 요즘 지하에다 공장하고, 1층 2층 살림집.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지..... 이게 인제 보일러실이라는 것이야. 요만큼 이. 이게 인제 창고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부엌. 썩고대는 여기. 이게 가스렌지. 이게 냉장고고 신발은 여기다 놓죠.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쪼그맣고. 여기다 신발장은 이렇게 된 상텐 거 같고. 여기 신발장. 베란다는 없어요. 요기가 층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냥 딱 이게 현관문이니까. 근데 여기 그리면서 보니까 넓네. 이게 창문이고. 이게 냉장고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여기다 놔는데. 보루네 요 그거 있잖아. 그거 여기다 놔. 아들방이지, 화장실이지. 화장실이 이렇게 돼지? 여기가 똑같지 않구. 여기가 인제 뭐 책 놓는 책장이 있어요. 유리문 있는 거. 여기가 책꽂이가 있어요. 내가 쓰는 책꽂이. 안방문은 여기여. 이게 책꽂이. 이게 이렇게 크지가 않는데. 아들 방문도 다 안 열려요. 문이 그러니까 저기 누가 왔는데 잘 못 들어가. 뒤에다가 그 세워놓는 옷걸이 있죠? 그걸 문 뒤에다 놔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상이 여는 책상보다 좀 크거든요? 하여튼 책상이 좀 크고 길어가지고, 책상 놓고 거 세워놓는 옷걸이 놔는데 문이 잘 안 열려. 그러니까 다 못 열리지. 요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 장롱은 여기에 있구요. 여기다 TV 놓구요. 여기에 인제 뭐 또 보따리 보따리. 아들 방은 이게 침대, 여기가 책꽂이. 아니 여기가 인제 뭐 CD하고 DVD하고, 여기가 인제 오디오. 여기가 또 침대 머리 위에 오디오. 그다음에 이게 책꽂이 여기가 책상. 근데 바닥에 다 책 쌓아놓은 거. 근데 이 앞쪽 방을 애를 줘야지 된다고 애 집이 많아서. 이방을 주자고 그러니까 여기에 장롱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장롱

을 여기다 놓고 나가 이방을 써라. 그랬더니 사생활 침해라는 거야. 옷 입는다고 맨 날 지 방, 그렇지 않냐 뭐 이러더라고. 여기가 바로 창이예요. 여기 식탁. 바로 식탁. 여기가 컴퓨터. 그러니깐 여기도 비좁고 막. 이게 구석이란 곳엔 뭐든지 쌓아가지고. 문도 막 발로 요렇게 요렇게 해지고 문을 열어야 돼. 요기 보일러. 여기가 지금 세탁기가 들어가 있는데. 뭐 신발도 요즘은 왜 그렇게 많아요? 등산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신발도 일단 버리면 좋은데. 인제 박스가 많더라고.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는. 가진 걸 거거든. 10년을 박스를 놓은 거야. 이집서도 7년을 박스를 썼다가.

**살아보지 못하고 판 아파트:** 분당에 인제 아파트를 했는데. 95년도에 입주인데 95년도부터 그냥 비워뒀어요. 우리가 글로 갈라고. 애 대학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뭐 이거 냉장고, 이게 내 돈 주고 처음 산 냉장고예요. 여기 이집에서 96년도에...전부다 배달을 분당으로 시켰어요. 사가지고 거기 이사 갈 거니까. 가스레인지를 설치다 하고, 전화도 거기다 다 놓고 아 95년도에 입주 시작했는데 비워서 두고 그냥 관리비만 내고 비워두고.... 그랬다가 2003년도에 팔았죠..... 그러니깐 그 집에 다 들어갔다, 다 다시 띄어 온 거야. 이리로. 그래가지고는 막, 냉장고가 커서. 문짝은, 냉장고를 사는데 "엄마가 이거 살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너럴 샀거든요. 96년도에. 평생에 처음 사는데 제대로 된 거 좋은 거 사라. 그때 뭐 오디오도 다 지가 사곤 했는데, 이걸 뜯어야 되더라. 문이 작으니까. 냉장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10년 살아.

### III. 결론

사회사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거조정과 적응을 한 사람과 사회적 변화에 지체 현상을 보이면서 지역사회규범과 가족규범의 범주에 머물며 주거적응을 해온 사람들은 주거 경로에 있어서 주거사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자의 선정시 주거유형과 주거소유를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하여 주거경험을 유형화하였던 것은 타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미시적, 거시적 측면이 모두 변화하여야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회구성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여건과 기술수준의 변화에도 지체현상을 보이는 개별가족의 주거사용, 특히 주거시설설비의 사용과정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거유형과 경제력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주거유형임에서 알 수 있다. 아파트 거주가 시작된 이후 구술자 S씨는

주거시설설비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관심은 아파트 규모늘리기와 아파트를 통한 투자에 있었는데, 이는 아파트 보급이 우리나라 시설설비수준의 향상과 보편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결과이다.

둘째, 주로 단독주택거주자였던 L씨와 평생세입자 G씨, 현재 전통한옥 거주자 K씨는 주거사용의 효용성을 소유와 투자, 편리한 시설설비에 두기보다는 안락한 보급자리, 피호처, 가족과 가문의 상징성에 무게를 둠으로써 편리한 사용과 투자가치에 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S씨와는 주거경로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평생세입자 G씨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기술수준의 향상에 항상 지체현상을 보이는데, 주거의 의미(meaning) 부여를 피호처에 둠으로써 그러한 주거 사용(use)의 수준에 따른 규범적 주거결합을 줄이고 그에 맞게 주거적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것은 아파트보급, 시설설비의 보급과 같은 사회적 여건의 성숙보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거주지역, 주거의 의미의 주관성 같은 개인적 조건이 주거의 경로에서 나타나는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주요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주거의 사용(use)의 구성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신정.
- 김재익(2004). 한국인의 주거환경수준. 윤주현 편. **한국의 주택** (pp.85-121). 통계청.
- 김호철(2004). 주택재고 및 공가분석. 윤주현 편. **한국의 주택** (pp.49-70). 통계청.
- 전남일 · 양세화 · 손세관 · 홍형욱(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서울:돌베개.
- 박신영(2004). 주거빈곤가구의 특성. 윤주현 편. **한국의 주택** (pp.157-184). 통계청.
-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적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161-173.
- 윤주현 편(2004). **한국의 주택**. 통계청.
- Arias, E.G(ed)(1993).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Newcastle upon Tyne:Athenaeum Press Ltd.
- Burr, V(1995). *An Introduction to Social Constructionism*. London:Routledge.
- Clapham, D(2005). *The Meaning of Housing*. Bristol:The Policy Press.
- Franklin, B.J. & Clapham, D(1997), *The Social Construc-*



tion of Housing management. *Housing Studies*, 12(1), 7-26.

Gergen, K.J(1994). *Realities &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Cambridge, U.S.A.:Harvard University Press.

Morris, E. W.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and Sons.

접수 일 : 2009년 01월 09일

심사 일 : 2009년 0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2월 28일